

# 결핵실의 일상

글 류정숙(부산 사하구보건소 결핵실)

아름다운 신록에 감싸인 창가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오늘도 결핵실의 아침은 분주하다. 어떤 환자가 힘없이 앉아 있기도 하고 깊은 고민을 가진 것처럼 마음이 초조해 보이는 사람이 결핵실 문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한다. 결핵실의 매일은 기쁜 노래이기도 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드라마가 되기도 한다.

문득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산뜻한 색채의 미학에 황홀할 정도의 결핵실 창밖을 보고 있노라면 이 작은 사무실 공간이 한 편의 연극 무대라는 생각이 든다. 무대에 올려진 주인공들은 때론 기쁨을, 때로는 고뇌를 연기하고 장면이 바뀌어 분노와 절망을 연출하기도 하는 곳, 그 곳이 결핵실이다. 오랜 직장 생활 중 많은 시간을 결핵실에서 보내며 그런 상상이 위로가 되기도 한다.

어느 날 단정한 신사가 결핵실 문을 두드리며 매우 겸손하고 침착한 말씨로 “자신은 결핵이 없고 이상을 못 느끼는데 건강진단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다”며 당황해 한다. 결핵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아울러 안심을 시키고 폐 촬영과 객담검사를 한 후 석회화나 결핵소견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안심하고 만족해 하지만 어떤 어머니는 자녀의 결핵판정 소견서를 들고 보건소가 제일 치료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울먹이며 매달리기도 한다. 그 어머니는 안타까움과 자식에 대한 걱정과 자책으로 괴로워하며 정말 절실하게 치료를 받아들인다.

아! 나는 이 곳에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어느 가을 아침이었다.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을 했는데, 결핵실에서는 고성이가 들려왔다. 먼저 출근한 직원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민원이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진정을 시키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해도 자신의 말만 큰 소리로 외쳐댄다.

“약 줘, 왜 약 안 줘?”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한참을 그분의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제야 기운이 빠졌는지 신분증을 꺼냈다. 자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사는 곳은 모름, 정신장애4급, 청각장애3급. 잘 들리지 않아 자신의 이야기만 했던 것이다.

결국 마이크를 준비하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라고? 약 줘!”

“예, 저희 결핵실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약도 안주고 난 어디에 가든지 그냥 다닌다니 꺼! 병원은 비싸! 그런 게 어딴어!”

“.....”

“나 돈 없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병원에 갔다는 것 같은데 하루에 오만 원을 내라고 해서 너무 비싸 싼 병원을 알려달라고 하니 마산결핵병원에 가라고 했고, 결핵병원에 없는 돈을 들여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런 데는 못 있겠다든 이야기로 들렸다. 이유인즉, 자유가 없어서!

먼저 갔던 병원이름을 알아듣고는 담당자와 전화를 하고 사연을 좀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결핵균 양성 환자이고 노숙자로 이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여 마산결핵병원 의뢰서를 가지고 퇴원했으며 그 이후는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핵사진과 즉석 객담을 받은 뒤, 거처가 분명하지 않아 시설을 소개했지만 본인도 자유롭게 있고 싶고 어디든지 오래 있지 못하니 군 양성 환자를 시설에 보낼 수도 없는 마산결핵병원을 다시 권했지만 화만 내며 자유를 더욱

맹렬하게 할 기세였다.

노숙에 필요한 자신의 모든 것을 결핵실 방안 가득 늘어 놓았다. 약간 냄새도 나고 환자 상태는 초췌하고 허약 그 자체이니 치료를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보였다. 담당의사와 상의 후 결핵 환자로 등록에 필요한 검사와 조치를 취하고 치료 교육을 실시했다. 듣는 등 마는 등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등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다. 한 마디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

투약을 받지 못한 채 지금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나 많은 이에게 결핵을 옮길까? 걱정에 걱정이 앞서는 것은 내가 결핵담당 공무원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병원의 소견서를 팩스로 받고 식전이라 하기에 약을 바로 복용시키고 식전객담을 위해 객담통 2개를 드리고 내일 다시 오시면 약을 드리겠다고 약간의 엄포를 놓았다. 그냥 간다고 하며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보기에 애처로운 몸짓으로 가버리는 환자의 뒷모습이 안쓰러워보였다.

하루 종일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 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막막했다. 결핵의 전염을 막고 그 분의 치료에 대한 방안은 무엇일까? 만약 내일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

초조한 하루가 가고 다음날 아침, 예전과 다르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결핵실에 출근하니 그 환자가 와 있었다. 식전 객담통을 받아서 검사의뢰하고 하루 분 약을 바로 복용시키고 내일 또 오시면 일주

일 분의 약을 드리겠다고 하니 “약을 줘서 고맙다! 내일 또 오겠다”며 짐을 챙겨 떠났다. 또 다시 걱정이다. 내일은 오실까?

그 다음날 그 분이 또 오셨다. 균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니 규칙적인 복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3일째 약을 복용시킨 후 일주일 분의 약을 드렸다. 그래도 걱정에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틀 후 다른 구 보건소 결핵관리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생님 000씨 아시지요? 우리보건소에 오셔서 막 고함치고 약 달라며 난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요? 결핵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 선생님 보건소에서 치료 중이던데요.”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 특별한 거처 없이 노숙자로 생활하시니 역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가면 되겠다. 본인의 행동장애가 스스로 인지하기에도 벅찬 결핵환자!

보건소에서 이미 받은 약이 5일분 있을 테니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 받도록 권유하고 약은 주지 말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이나 지나서 그 분은 다시 보건소에 오셨다. 이제 보름치를 드릴 테니 다시 약 타러 오시라고 했다. 알았다고 하시며 이제 기침이 제법 많이 좋아졌다고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일주일이나 지나 그 분이 흥분하여 오셨다. 독감 예방접종 시기라 민원이 많을 때였다. 본인은 감기 걸리면 안 된단다. 누구에게든 삶은 경건하고

소중한 것이다.

예진을 거쳐 예방접종을 해 드리니 정말 놀랍도록 밝은 얼굴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 분의 순진한 표정과 몸짓! 아! 이분도 이렇게 좋은 걸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다시 복용지도를 위해 마음이 바빠졌다.

다행히 2주간 복용의 결과로 균은 음전 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열심히 치료를 계속한 결과, 얼굴이 밝고 정말 살도 찌고 좋아 보이는 상태다. 걱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말이다.

처음에 그 환자가 결핵실을 방문했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 했던지! 아마 결핵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이 겪는 고뇌의 일부분일 것이다.

예술가의 결핵치료 이야기는 지금도 드라마 같다. 그분은 힘든 치료를 마치고 현재 정신요양기관에서 환자들과 작업요법을 도우며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결핵실에 자주 전화도 주신다. 결핵에 대한 중요함을 잘 알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신다.

사실 특별하게 해 드린 것도 없는데 이토록 마음 뿌듯해지는 것은 이 일이 나의 작은 소명으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언젠가 사라질, 사라져야만 하는 결핵을 위해 오늘도 나는 열심히 달린다. 결핵 퇴치의 그 날을 위하여! †